

안동권씨 서울지역종친회 대전뿌리공원 견학

안동권씨 서울지역종친회(회장 권영복) 회원 40여 명은 9월 14일 대전뿌리공원을 견학했다. 지겹던 폭염도 지나가고 천고마비의 계절이 다가오는 가을의 문턱에, 회원들은 인천, 의정부, 여러 각지에서 참석했다.

아침 7시 30분 회원 40여 명을 태운 선진관광 버스가 사당을 출발하여 10시경 대전 뿌리공원에 도착하였다. 대중회 권행만 편집국장께서 공원사무실에 견학에 대한 안내를 부탁하는 연락을 해주어서 공원 관리사와 문화해설사 다섯 분이 나오셔서 반갑게 맞이해 주었다.

기념 촬영 후 해설사를 따라 300여 성씨들의 조형물이 즐비한 만성산에 올라 대전시에서 추진한 뿌리공원의 유래를 문화해설사로부터 감명 깊게 들었다. 그중 안동권씨 조형물은 102번째로 자리하고 있었다.

권정수 회장은 조형물을 둘러본 후 각 문중별로 추진위원들의 기록이 타 문중에는 문종 명칭만 되어 있지만 안동권씨만이 추진위원회 회장 이름까지 새겨져 있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지적을 해주었다. 회원들은 단체로, 개인별로, 또 삼삼오오 기념촬영을 했다.

성씨 조형물 견학을 마치고 박물관으로 발길을 옮겨 각 문중의 족보와 유래 등을 관람했다. 박물관에는 1476년에 발간된 한국 최초의 족보가 성화보라고 소개하고 있었다. 관람을 마친 후 사전에 예약이 되어있는 식당으로 이동하여 고등어, 명태구이로 약주를 곁들여 담소를 나누

어가면서 맛있는 식사를 하였다. 다음 목적지 충북 음성군의 양촌 권근 삼대묘소로 가는 길에 잠깐 시간 여유가 있어서 금산의 제약회사에 들렀다. 건강식품 지식도 알고 몇 분들은 구매도 했다. 충북 음성 방촌리에는 고려말 조선초기의 대학자로 명성이 높은 문충공 양촌 권근 선조와 문경공 권재 선조, 소헌당 관람 선조의 삼대묘소를 참배했다. 권오협 문충공 종중 회장은 직접 영접을 나오셔서 반갑게 맞이해 주었다. 일행은 경건한 마음으로 참배를 했다. 권오협 회장은 삼대묘소에 대한 상세한 안내와 함께 선조님들에 대한 감명 깊은 보화강좌도 해주었다. 추밀공파 문충공 선조 후손들에게서 안동권씨의 사시(四始)가 나왔다는 말에 모두가 놀라워했다.

대전을 시작으로 금산과 음성을 거친 서울지역종친회 9월의 유적지 탐방은 오후 7시 30분경 아무런 사고 없이 서울에 도착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다음달 행사는 서울 강남에 있는 선정릉으로 결정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하고 모든 행사를 마쳤다.

회원여러분들의 진심 어린 협조에 감사드린다. 매월 행사 준비라 수고가 많은 권순휘 사무국장 내외분과 옥희, 지은 총무에게 이 자릴 빌어 감사드린다. 특히 권순휘 사무국장은 공장도가격 3만원 상당의 이불을 협찬해 주었다. 감사한 마음 전한다.

권영복 서울지역종친회장



근당 권태은 서예가 제16회 경상북도 유림 서예대전 대상 수상

근당(勤堂) 권태은(權泰殷) 서예가가 제16회 경상북도 유림 서예대전에서 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시상식은 10월 21일 열릴 예정이다. 이 시의 제목은 답설(踏雪)이 아니라 '들판의 눈' 야설(野雪)이다. 이 시는 서산대사나 백범 김구의 시로 알려져 있으나 원작자는 조선 후기에 뛰어난 시인으로 활약했던 산운(山雲) 이양연(李亮淵, 1771~1856)이다.

踏雪野中去 (답설야중거)
눈 덮힌 들판을 걸어 갈 때에
不須胡亂行 (불수호란행)
걸음을 함부로 어지러이 걷지 마라
今日我行跡 (금일야행적)
오늘 내가 지나간 발자취는
遂作後人程 (수작후인정)
반드시 뒷사람의 이정표가 되리니

밤새 들판에 눈이 수북이 쌓였다. 아침 일찍 어디로 가는 첫 발자국은 뒤에 오는 사람의 이정표(里程標)가 된다. 어디 함부로 걸을 수 있겠는가.

권행만 편집국장



정읍종친회 임원 시조 묘소 참배



정읍종친회(회장:권병석) 임원 6명은 지난 9월 20일(토) 7시경 소나기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가운데 4시간을 달려 11시 안동시 성곡리 능동재사에 도착하여 대중회 안동사무소 권오의 국장의 안내를 받으며 준비해 온 주과포(酒果脯)로 시조 태사공 묘소를 참배했다.

이후 권오의 국장으로부터 능동재사의 설립 유래와 관리 전반에 대한 설명을 들으며 안동댐으로 향하여 보조재 월영교

경관지에 있는 까치구멍집에서 안동의 별미인 헛제사밥을 들면서 담소를 나누었다. 늦은 점심을 먹은 후 시내 북문동에 소재한 태사묘로 이동 삼태사 위패를 모신 묘우(廟宇)에서 성배하고 그 당시 병산전투와 고려 개국공신 삼태사의 업적과 태사묘의 유래를 자세히 설명을 듣고 경내를 관람한 후 삼태사의 공덕을 기리면서 오후 4시 정읍으로 떠났다.

안동사무소 권오의

동정

▲ 권대원(부정공파 37世) 육군 중장이 9월 8일 합동참모본부 차장에 임명됐다. 권대원 중장은 학군 30기로, 지상작전사령부 참모장, 합참 민군작전부장, 제39보병사단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장경험과 전략기획 능력을 두루 갖춘 합동작전 및 위기관리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합참 차장직 신설 이후 최초로 학군단(ROTC) 출신이 발탁된 사례다. 권대원 중장은 경북 구미에서 태어나 구미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한양대학교 안산캠퍼스 경기지도학과 88학번 출신이다.

▲ 권대석 선정종합건설(주) 대표이사가 지난 8월 27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건설, 우리의 꿈과 미래를 위한 약속'이라는 주제로 개최된 2025 건설의

날 기념식에서 건설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 권영걸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 초대 원장이 9월 16일 취임했다. 권 원장은 서울대 디자인학부 교수, 서울시 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대통령 직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 등을 역임했다. 세종연구원은 대전시와 세종시가 공동으로 정책연구원을 운영한 지 9년 만에 분리돼 새롭게 출범한 조직이다. 학술연구가 시정 현안 중심으로 연구에 집중할 예정이다. 권영걸 원장은 세종시 최초로 개최된 정문회를 통과했다. 임기는 3년이다.

▲ 권기식 한중도시우호협회장이 8월 15일 광복 80주년 기념하여 대한민국임정100주년기념 범국민추진위원회로부터 민족공헌대상(사회 공헌 부문)을 수상했다. 권 회장은 중국 헤이룽장(黑龍江)성 하얼빈(哈爾濱)시에서 안중근 동양평화문화축제를 운영하고 한국 청소년들의 위순(旅順)감옥 방문을

추진하는 등 독립정신 교육과 독립운동가 선양에 앞장서 왔다. 또한 권 회장은 장순배 2025 한국을 빛낸 글로벌 100인 대상 시상식 조직위원장으로부터 글로벌한중발전공헌대상을 수상했다. 권 회장은 지난 2016년 외교부 소관 사단법인 한중도시우호협회를 설립한 이후 지방정부, 경제, 청소년, 문화 등 분야에서 한중 공공교류를 위해 노력해온 공로를 인정받았다.

▲ 권선옥 논산문화원장이 9월 26일 '2025 지방문화원의 날 기념식'에서 지방문화발전 유공자로 선정돼 문화체육

관광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권 원장은 지난 2018년부터 논산문화원을 이끌며 '문화학교'와 '영상문화 강좌' 등 시민 참여형 교육 프로그램으로 주목을 받았다. 마을 이야기를 조사·채록해 지역의 유형·무형 문화유산을 발굴하였고, 각종 답사와 공연 관람을 기획해 시민들에게 생생한 문화 향유 기회를 선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 권오현 전 삼성회장이 기획재정부 중장기전략위원회 위원장에 내정됐다. 중장기전략위는 기재부 장관 자문기구

로 국가의 미래 전략을 수립하는 기구이다. 권 전 회장은 삼성전자 반도체총괄 사장, 대표이사 부회장·회장, 삼성종합기술원 회장을 역임했다. 지난 2018년에는 33년간 삼성에서의 경험을 담은 '초격차'라는 제목의 책도 출간한 바 있다. 퇴임 후에는 서울대 이사장을 맡기도 했다.

▲ 권명호 한국등서발전 사장이 지난 27일 연세대학교 백악누리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25년도 KSQM-QMOD-ICQSS 공동 국제

에서 글로벌품질경영인대상을 수상했다. 권명호 사장은 지난 8월 20일 울산 전시컨벤션센터(UECO)에서 열린 제27회 한국경영학회 융합학술대회 시상식에서 경영혁신 성과를 인정받아 경영혁신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仲秋佳節

100만 족친 여러분!
건강하고 행복한 한가위!
넉넉하고 풍요로운
한가위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안동권씨 대중회장 권영창 외 임직원 일동